

제천군 덕산면

전통있는 약초의 고장

약초재배기형성



이한승 사무소장

충주에서 덕산행 완행버스를 타고 한시간 가량 달리는 동안 차창 밖의 비천진 들판의 비가 파사로운가를 행렬을 받아 한창 황금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판이판이 수려한 산세를 끼고 들어오는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고개를 넘어 바닷변면 하를 보다 더 높아 보이는 산봉우리가 우뚝하고, 숲이면 가지각색 들녘(수선)가 울창처럼 푸르름이 푸르다. 월악산과 금강이로 저쪽까지 울기 울기 모여 앉은 사람의 집은 그저 선명하게 처럼 보인다.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의 위세에 불려기를 퍼지 못하고 사는 도시인들에게 이곳은 그저 별천지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런 곳에서 나는 약초가 우리 몸에 이롭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할 정도다.

마치 산의 조각처럼 으르르 푸르름이 울렁거리고 있다. 산파를 일관적으로 전이하는 기복보다 눈앞의 사람의 손

이탈아 할 것이라는데 생각이 이르자, 실지 그곳에서 허리급히 약초를 재배했을까? 농민들의 수고가 더욱 없지 않게 느껴진다.

제천군 덕산면은 20~30년전부터 꾸준히 약초농사를 지어온 전통있는 약초의 고장이다.

로 현재 1천5백여 농가가 약초재배로 생업을 꾸리고 있다.

산악지대라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 약초밭이 조각밭인 이곳엔 몇몇 밭이나 보다는 조각밭 몇개를 가지고 있느냐로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주요품목인 황기, 당귀, 오미자, 백지, 복령, 천궁, 보령, 인삼, 등 유한 약초재배고 전민적 고령의 품종의 약초들이 사육되고 있다.

「수확이되면 유명한 이곳을 산지현의 따라 약초의 수확한 지요이므로 나쁜 것이 단단한 화안 지역엔 고추를 약초는 풀이 산행되어 배수가 잘되는 선형인 지역에서만 재배된다고 한다.

석회암지역에 약초농사, 화강암지역엔 고추

황기 당귀와 작약 무단 강활등 품종 다양

사람 키 만들이나 쏙 자라 한 무더기를 이루고 있는 흰꽃 무더기가 보기에 아름다웠다.

「부활절 4~5년 후 수확하는 다년생으로서 맛과 모양이 두루나를과 비슷해서, 식용으로 볼 때나 물대신 많이 이용되는 지용성 천연염료로 산사부소장으로 있는 이한승씨의 설명이었다.

덕산면에서도 가장 약초재배가 많은 곳이 이곳이다.

약초를 재배한다는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기, 당귀, 작약, 오미자, 백지, 복령, 천궁, 보령, 인삼, 등 유한 약초재배고 전민적 고령의 품종의 약초들이 사육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20일 정도 늦게 찾아오기 때문. 늦은 가을에도 새파란 황기 잎을 볼 수 있는 곳은 아마도 덕산면이리라.

그때도 다른 지역 작물들에 비해 뿌리도 굵고 튼튼한 수확을 볼 수 있다.

이소장은 그러나 유난했던 지난 여름을 떠올리며 올해는 정말 큰 일이라고 걱정한다.

다른 지역이 가뭄피해로 약초농사를 망친 데 비해 이곳 덕산은 가파른 지리적 특성에 의해 수해피해가 대대적인 것.

당귀는 아예 캐제 없을 정도로, 황기는

내다보고 있다.

「황기 1만평이 1천~2천원이고, 비교 적 저렴한 데다 대부분이 자기 땅이 아니라 임대수해 피해에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이소장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실망의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언제까지 천재지변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 보다 전문화체제를 갖추고 고품질 생약개발을 위해 덕산면에도 50여명의 회원들이 가진 약초 재배교육이 실시되는 시기는 주로 봄과 겨울.

세정비를 교환하고 무엇보다 전국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약초재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약초재배는 현재 약재시장이 있는 제천시내에서 10분 거리의 금성면에, 황기, 오미자, 백지, 복령, 천궁, 보령, 인삼, 등 유한 약초재배를 뽑아 드림프를 만들어 내는 가공공장 설립을 신청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현재는 제천군 한수면에는 또 고분주 공장들이 건설 중이라고도 한다.

작약 1만평, 황기 5천평, 당귀 5천평, 오미자 1만평 정도를 재배하고 있다는 이소장은 「재배종은 다른 약재에 비해 재출을 안

지금까지 고향을 지키며 약초와 더불어 살아온 그에게 이제 약초재배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심도도 전류에서 재배된 우리 지향은 값싼 수입 지향에 밀려 차츰 그 자취를 감추더니 지금은 거의 종자조차 구하기 힘든 형편이며, 수요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소장은 바로 이 지향을 이곳 저곳 합하여 대략 2천평 정도를 시험재배 하고 있는 것이다.

네군데로 나눠 심은 지향은 재배법에 있어 조금씩 차별화를 두어 관리한다. 가령 비료 주는 법에 있어 서로 밀비료를 주고 나서 웃비료를 한번 주는 것. 웃비료를 여러 번 나눠 주는 것. 웃비료를 많이 주고 웃거름을 하나도 안 주는 것.

이소장은 물론 정성을 아끼지 지향밭을 여러 줄을 길게 가둬도 고고였어 푸른 잎사귀를 신선하게 내려고 한다.

「지향 시험재배의 성공한다면, 종자를 다량 재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양묘업도 수입지향들을 육성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월악산 산자락 아래 아기가 조각밭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 다른 지역보다 땅 그림자가 먼저 지는 곳이기에도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무력 무력 자라나는 나무들 같이.

제천군 이곳 덕산면에서는 무공해 영농의 꿈이 쏙쏙 뻗어 지향의 푸른 잎사귀 만큼이나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이한승사무소의 2천평 정도의 지향을 시험재배 하고 있다.



제천군 덕산면은 20~30년전부터 꾸준히 약초농사를 지어온 전통있는 약초의 고장이다.

뿌리 굵고 튼실한 수확 도기리 황기 금년 수해피해로 당귀는 캐제없을 정도

이 소장은 바로 이 지향을 이곳 저곳 합하여 대략 2천평 정도를 시험재배 하고 있는 것이다.

네군데로 나눠 심은 지향은 재배법에 있어 조금씩 차별화를 두어 관리한다. 가령 비료 주는 법에 있어 서로 밀비료를 주고 나서 웃비료를 한번 주는 것. 웃비료를 여러 번 나눠 주는 것. 웃비료를 많이 주고 웃거름을 하나도 안 주는 것.

이소장은 물론 정성을 아끼지 지향밭을 여러 줄을 길게 가둬도 고고였어 푸른 잎사귀를 신선하게 내려고 한다.

「지향 시험재배의 성공한다면, 종자를 다량 재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양묘업도 수입지향들을 육성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월악산 산자락 아래 아기가 조각밭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 다른 지역보다 땅 그림자가 먼저 지는 곳이기에도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무력 무력 자라나는 나무들 같이.

제천군 이곳 덕산면에서는 무공해 영농의 꿈이 쏙쏙 뻗어 지향의 푸른 잎사귀 만큼이나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文程熙 기자〉